

“글로벌 경제가 동시 침체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와중에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정책을 펴면서 시장 활력이 더욱 줄어든 것입니다. 친기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때는 면밀한 시장 분석보다 케인스가 지적한 ‘즉흥적 낙관(spontaneous optimism)’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들이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자극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와 무역 질서가 바뀌면서 한국을 둘러싼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중 무역분쟁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강대국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세계 경제 여건의 불안은 지속되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강대국의 일방주의가 확산될 겁니다. 한국은 미·중 패권 전쟁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경제·외교 전략을 짜야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수출 다변화·다층화로 대(對)중국 의존도를 낮춰가는 동시에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에 대한 경제적 ‘레버리지’를 살려가야 합니다.”

**▷경제적 레버리지를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의 수단으로 관광 부문에 제재를 가한 반면 제조업에는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수출 중간재 상당수를 한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이 한국 제조업에 제재를 가하면 그만큼 중국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 주력 산업에는 손을 못 댄 것이죠. 이처럼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가 가진 산업적 우위를 계속 유지해야 미·중 갈등 속에서도 우리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중국제조 2025’ 전략 추진으로 중국 제조업 부품의 자급률이 올라가면 한국의 경제적 레버리지는 그만큼 약화될 겁니다. 앞으로는 한국 제조업에 대한 압박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 사공일 명예이사장은...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은 1983년 버마(미얀마) 아웅산 테러로 순직한 김재익 전 경제수석의 뒤를 이어 4년 동안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았다. 이후 재무부 장관, IMF 특별고문 등을 지냈다. 사공 명예이사장은 현직 퇴임 이후인 1993년 세계경제연구원을 세워 정기적으로 해외 명사를 초청하는 ‘해외 석학 초청 세미나’를 열고 있다.

△1940년 경북 군위 출생 △경북고, 서울대 상대 졸업 △미국 UCLA 경제학 박사 △1969년 미국 뉴욕대 교수 △198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1983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1987년 재무부 장관 △1989년 IMF 특별고문 △2008년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2009년 27대 무역협회장 △현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

김익환/고경봉 기자 lovepen@hankyung.com